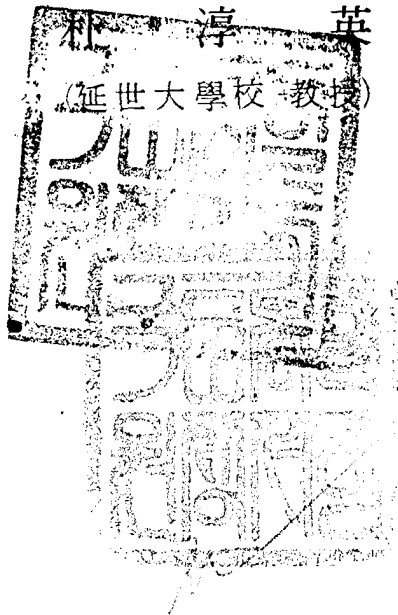


3082.7
340.1

西獨의政治教育



서독정치교육
 서독교육
 통일교육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目 次

政治教育의 意義	3
1. 西獨의 政治教育의 歷史	3
< 政治教育의 實踐歷史 >	4
2. 政治教育의 組織體系	7
< 政治教育 研究所 >	7
3. 政治教育의 內容	9
< 內容領域 >	10
4. 結 論	16
附 錄	19
< 西獨反共教育의 實態 >	19
< 方法的인 領域 >	24



政治教育의 意義

어떤 共同體의 社會에서든지 그 共同體의 存屬과 繁榮을 위하여 政治社會化를 意圖로 하는 教育은 必須的으로 要請되고 있으며 그런 意味에서 政治教育은 共同體社會의 歷史만큼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政治的 社會的 現實의 變化에 따라 政治教育의 重點과 內容의 多樣性은 있었지만 特殊한 共同體의 構成員 모두가 그 社會에 適應하며 삶을 保存하고 살 수 있는 知識과 能力내지 價値觀을 內面化시키는 教育行爲의 機能은 같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政治教育은 知識과 能力을 習得케 하는 一般的인 職業教育과는 다르고 價値觀과 行動規範의 內面化라는 點에서 倫理教育과도 區別되어야 한다. 政治教育은 바른 現實認識 위에서 構成員의 社會生活 全體를 包括하여 社會的 現實에 대한 判斷能力和 共同體의 目標設定에 맞는 生活樣式을 意識化시키는 綜合的 世界觀의 教育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政治教育은 共同體의 結束과 發展을 위한 必然的인 要請임에도 不拘하고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무수한 危機를 克服했어야만 했다.

1. 西獨의 政治教育의 歷史

政治教育의 理念과 그 機能을 根本的으로 理解하기 위하여 우리는 같은 分斷國家인 西獨의 政治教育의 歷史와 現況을 살펴보는 것이 有益하다고 생각된다. 政治教育의 哲學的인 理論根據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홉스는 原來 人間은 個人的 自己保存本能(Selbsterhaltungstrieb)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國家의 權

力에 의해서 統制되고 矯正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내세웠다. 이러한 原則은 오늘날에도 國民政治教育의 基本原則으로 適用되고 있다. 프리트너(Fli-tner)가 말했듯이 “政治教育의 內容領域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確定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록 專制政治體制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政治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社會에서도 거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홉스에게서나 그 이후에서도 國民政治教育은 既存體制의 要請에 따라 實施되었고 또 그 限界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즉 既存體制의 限界內에서 國民에게 必要한 知識과 行動規範을 設定했고 이를 訓練시켰으며 國民의 自由로운 意識形成도 언제나 定해진 方向안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을 主管하고 있는 機關自體로 부터 어떤 反省的·批判的인 論議는 排除되어 왔었다.

<政治教育 實踐歷史>

獨逸의 경우 政治教育의 實施가 처음 文獻에 나타난 것은 프랑스革命과 1848年 사이였는데 헤어바르트(Herbart)나 슈테파니(Stephani) 등의 글에서 었다. 슈테파니는 1797年에 쓴 「國民教育學의 基礎」(Grundriß der Staatserziehungswissenschaft)에서 “市民教育은 人間으로 하여금 그가 所屬된 共同體의 모든 社會的인 關係와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는 知識과 技術을 熟達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프랑스革命이 導火線이 되어 유럽이 不安定期에 접어든 以後부터는 政治教育이 「國家的인 課業의 成就와 庶民들의 能力向上」에다 目標를 두고 國家의 管轄業務를 理解시키고 支配體制에 危險이 올 때 이를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서 그 機能을 다하였다. 1814年 헤어바르트가 “專制國家에서는 自發的인 服從(Freiwillige Gehorsam)을 庶民의 德目으로 삼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 時代狀況을 잘 說明해줄 뿐만 아니

라 그후 民主的 政治教育原則이 抬頭될 때까지 繼續 妥當한 것으로 認定받게 되었다.

프러시아王國 末葉 (Wilhelm II世의 即位무렵 - 1889年)에 設定된 政治教育의 原則이나 바이마르共和國時代의 市民倫理 (Staatsbürgerliche Ethik) 교육도 王權確立과 支配體制의 辯護에 그 重點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傾向은 繼續 히틀러 (Hitler) 時代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 예가 빌헬름皇帝의 勅令에 준해서 만든 「實踐歷史-政治的 思考와 意志의 教育을 위하여」(1910年出版)라는 冊의 序文이다. 여기에서 볼프(Wolf)는 政治教育의 課題와 目的은 “市民으로 하여금 獨逸文化에 대한 矜持를 가질 것과 獨逸의 特別한 偉人들을 崇尚케 하고 매우 強力한 國家權力의 必要性에 대한 確信, 國家와 民族과 人間에겐 差異가 없다는 平準化思想과 또 民主化되어가는 現象이 危險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1933年 히틀러 治下에서 낸 11 卷 序文에서는 “1933年 革命以前에 내가 平生동안 싸워왔던 일의 實現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冊의 附錄으로 히틀러의 政府白書 (Regierungserklärung) 전문을 添附하고 있다.

西獨의 政治教育의 革新은 1950年代 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權威的인 힘에 의해서 強要되어 왔던 것이 同僚的인 協同 (Partnerschaftliche Kooperation)으로 바뀌어지고 自發的인 服從대신에 對話와 說得의 原則이 適用되었다. “國家는 國民에 대하여 對話的인 關係로 把握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 점은 政治教育에 있어서 自發性과 自律性이 根本的으로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을 分明히 하고 있다.

西獨은 政治教育理念을 自由民主主義의 原則下에 價値觀의 自由를 標榜하고 어떤 特殊한 人間像의 具現을 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多元主義的인 價値를 認定하여 個個人의 自由로운 自己實現을 保障해 주면서 民主主義體制의 正當性을 肯定하도록 서서히 說得하고 있다. 즉 靑少年들로 하여금

社會現實을 眞實되게 보여주고 이러한 體制아래서 우리가 順應해야 할 것과 또 反對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도록 啓蒙시키고 있다. 이러한 啓蒙에 優先하는 것은 靑少年들이 政治現實을 바르게 判斷하기 위하여 洞察力을 갖게 해주고 社會全體의 聯關아래서 自身의 意思形成을 돕기 위한 判斷力과 批判意識을 許容하고 參與를 위한 選擇의 餘地를 開放해 주고 있다. 西獨의 政治教育은 多元主義的인 原則과 各 地方政府의 政治教育의 多樣性때문에 1960年代까지도 어떤 統一的인 政治教育內容이 정해지질 못했다. 60年代에 들어와서 政治教育에 發達 心理學과 여러 社會科學(즉,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歷史學 등)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國家가 設定하는 民主體制의 正當性에 대하여 自然스럽게 合意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게 되었다. 그러나 政治教育에 대한 關心과 理論的인 體系作業은 70年代에 들어서면서 本格化되었다.

이때까지의 政治教育은 適應의 教育和 習慣들임(Gewöhnung), 또는 支配體制에 대한 辯護 以上の 것이 아니었음을 反省하게 되었다. 選擇과 批判의 開放性을 許容하지 않는 體制 아래서는 創意性이 있는 靑少年을 길러 낼 수 없음을 알고 自發的인 思考訓練을 통해서 構成員 스스로가 民族共同體의 더 나은 삶의 與件을 保障해 줄 수 있는 政治體制의 摸索과 設計를 꾸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에서는 무엇을 익히 안다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靑少年 스스로가 自立的으로 생각하고 行動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主觀的인 解釋에서 解放되는 客觀的인 事實認識과 知識을 獲得할 수 있도록 保障해 주어야 하며, 이 知識情報은 결코 어떤 特殊階層의 意圖에 의해서 彩色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올바른 判斷과 參與가 社會全體의 聯關위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政治教育의 組織體系

< 政治教育研究所 >

西獨의 政治教育을 主管하는 部署는 1952 年에 設立된 「聯邦政治教育研究所」(Institut für Politische Bildung)이다. 처음에는 「鄉土奉仕를 위한 聯邦本部」(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란 名稱으로 시작되었으나 途中에 「聯邦政治教育研究所」로 바뀌었다. 聯邦政治教育研究所는 中央本部를 首都인 본(Bonn)에다 두고 각 州마다 地方政治教育研究所를 두어 政治教育의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聯邦政治教育研究所는 聯邦政府의 內務部에 所屬되어 있다.

이 機構의 設立趣旨와 目標은 “政治教育의 諸般措處를 手段으로 獨逸國民에게 政治的 諸般 問題에 대한 理解를 일깨우고 民主意識을 確固하게 하며 自發的인 政治參與度を 높이는데 있다”고 明示되어 있다. 이러한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각 州의 政治教育의 內容이 그 地域에 알맞도록 多樣性있게 構成되고 있으며 聯邦本部는 州 地方研究所에 特別한 監察機能 보다는 協議機構이며 超 地域的인 性格을 지니는 問題에 대한 措置를 내리고 또 政治教育의 方向과 教授法을 檢討하는 課題에 대해서만 關心을 갖고 있다.

1974 年 內務長官에 의해 制定된 聯邦政治教育本部의 主要業務指針에는 聯邦政治教育研究所의 任務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聯邦政治教育研究所는 政治的 問題意識, 政治的 判斷力과 自發的 判斷을 喚起시키고 強化시키기 위하여 政治過程의 要素와 機能面의 關係에 대해 可能한 한 包括的이고 客觀的인 知識情報을 주어야 한다.

(2) 모든 市民이 國家와 社會안에서의 自身の 立場을 認識하는 것을 도

와준다.

(3) 市民을 基本法에 明示된 社會的 法治國家의 自由民主主義의 秩序를 肯定하도록 이끈다.

(4) 民主的 規律의 意味를 認識시키고 民主主義 節次를 익히는 것을 도와준다.

(5) 政治的 行動에 대한 自發性과 能力을 發展시킨다.

위와 같은 指針에 따라서 政治教育은 具體的으로 學校教育(教材를 통해서) 그리고 職業教育和 社會教育(成人教育, 職業再訓練, 教師教育和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에서 圓滑하게 持續되고 있는데 聯邦政治教育研究所는 특히 政治的인 問題에 대해서 民主化의 大 前提아래 되도록 客觀的인 知識情報를 주도록 努力하고 있다.

主要業務指針 第5條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政治的 問題에 대한 意見 差異나 反對意見도 適切하게 表現해 줄 수 있도록 保障하고 있으며, 資料 出版이나 大衆媒體를 통한 知識情報의 公開에서도 客觀性이 優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當面한 政治問題에 대한 教育이 政府의 立場과 相衡될 境遇를 念慮하여 管轄 담당국과 內務部와의 意見一致를 必要로 한다고 明示한다.

聯邦政治教育研究所가 客觀性과 政治的인 均衡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地方政治教育研究所도 이러한 方向에 步調를 맞추어 嚴密하게 民主體制에 대한 意識訓練 以外的 特殊한 執權政府의 關心은 可能하면 排除하여 中立性을 維持하려 애쓴다.

聯邦政治教育研究所는 國民啓導와 教育指針을 위해서 必要한 知識과 情報를 定期的인 出版을 통해서 供給해 주고 있다. 가장 重要한 것을 들면 「政治와 現代史에서」(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는 每週 發刊되는 것이며 여러개의 論文으로 構成되어 있고 「政治教育情報」

(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는 隔月刊으로 出版되며 特殊한 問題를 全 卷에 걸쳐 深層報告해 주는 具體的인 資料이다. 이 外에도,

「時事 政治教育情報」(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Aktuell)는 季刊으로 出版되는데 「政治教育情報」보다는 더 時事的인 것을 内容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非賣品이나 要請에 의해서 市民들에게 配付된다.

또 政治教育研究의 活性化를 위하여 「聯邦政治教育研究所의 文獻」(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n Bildung)을 發刊하고 있는데 이것은 特別한 主題를 가진 政治教育의 學會, 會議, 其他 研究報告를 收錄하여 政治教育의 問題, 教科課程 方法 課題 등을 學問的인 次元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定期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冊子形式으로 出版되는데 1974 年의 境遇 이미 總 100 輯을 出刊하였다.

3. 政治教育의 内容

西獨의 政治教育의 内容은 대체로 聯邦政治教育研究所가 包括적으로 設定한 範圍內에서 自律적으로 또 融通性있게 選擇되고 있다. 聯邦政治教育研究所가 比重을 두고있는 内容領域은 다음과 같다.

- (1) 民主主義 國家秩序 및 社會的 發展과 變化에 대한 理解의 促進
- (2) 議會·法治國家의 民主主義의 描寫와 敘述, 특히 政治, 經濟, 文化的 問題와 葛藤을 克服하는데 있어서 民主主義의 可能性과 可能性의 敘述과 說明
- (3) 自由·法治民主主義의 敵對者들 (특히 極左派와 極右派의 出現形態에

있어서)의 目的과 活動에 대한 精神的, 政治的 論爭

(4) 少數階層, 民族 그리고 種族에 대한 先入觀과 排他的 態도의 克服 및 相互 寬容의 法에 대한 認識

(5) 獨逸歷史에 대한 先入觀이 없고 또 批判的 立場을 취하는 教育, 특히 獨逸聯邦共和國의 發展과 나찌스時代 및 바이마르共和國의 展開에 대한 知識

(6) 國際政治關係 및 다른 나라와 民族의 生活樣式과 政治關心에 대한 知識傳達

(7) 유럽의 統合, 國際協力 및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平和安定의 必要性和 問題性에 대한 理解의 促進

(8) 國家와 社會 또한 第3世界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의 未來를 向한 準備 특히 이를 위하여 經濟的 技術的 社會的 發展過程에 대한 理解의 喚起와 強化를 圖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原則은 각 州의 政治教育研究所의 裁量아래 自律的으로 改編 補強하도록 했기 때문에 統一的인 教材가 없이 각 州의 實情에 맞는 教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

<內容領域>

各 州마다 약간의 多樣性은 있지만 課題로 政治教育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 基本法에 明示된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基本秩序(基本法 第1條: 人間尊嚴의 保護, 第2條: 自由權, 第3條: 法앞에서의 平等, 第20條: 抵抗權 등)

(2) 個人과 社會와 國家關係

(3) 自治制度와 聯邦主義

- (4) 國家와 經濟와 人間
- (5) 經濟에 있어서의 協同과 團體
- (6) 村落 都市 空間秩序
- (7) 環境保護問題
- (8) 權力과 政治의 倫理的 問題
- (9) 歷史와 現代에 있어서의 人權問題

具體的으로 술레스빅하·홀스타인主義 政治教育의 指導理念은 다음과 같다.

- (1) 自律的인 決斷과 責任있는 行爲에로 教育시킨다.
- (2) 機會均等과 個人의 最適의 自己實現을 圖謀한다.
- (3) 社會的인 同質感과 社會的인 行動을 이끌어 가도록 한다.
- (4) 能力을 發揮하고 그 準備態勢를 갖추도록 教育한다.
- (5) 科學的으로 訓練된 學習을 하도록 誘導한다.
- (6) 社會的 意思疎通能力과 그에 대한 準備態勢를 갖도록 도운다.

또한 니더작센主義 政治教育에 의하면 1972年 高等學校 下級班을 위한 社會科目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1) 職業社會에 있어서의 自律的 決斷
- (2) 私有財産의 問題와 私有財産政策
- (3) 마르크스主義 理論基礎
- (4) 都市의 問題와 都市環境計劃
- (5) 國際貿易
- (6) 平和의 問題
- (7) 環境保護問題의 基礎

이 중에서도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入門을 위한 教材 指導案은 다음과 같다.

(1)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基本概念理解 그와 聯關된 것을 理解하고 마르크스의 全體社會的인 分析을 理解한다.

(2) 마르크스는 결코 閉鎖的인 世界觀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批判的인, 社會批判을 提示한 것을 理解시킨다.

(3) 마르크스의 理論은 實踐과 結付되어 있다.

(4) 마르크스理論에 대한 根據없고 無批判的인 그리고 感情的인 肯定이나 否定을 除去한다. 이러한 커다란 課題를 밝히기 위해서 그前提가 되는 基礎理解를 試圖한다.

(1)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人間學的 哲學的인 基本理念을 理解시킨다.

(2) 歷史的 唯物論의 基本概念을 예를 들어 發展시키도록 한다.

(3)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의 基本概念을 把握하게 하고 그의 全體社會的인 聯關을 밝히게 한다.

라인 단트·팔츠主義 政治教育의 內容은

(1) 靑少年들이 直接으로 接하고 있는 社會化의 領域

(2) 大衆媒體를 통해서 擴散되는 意思疎通의 領域

(3) 經濟와 職業

(4) 社會의 構造와 政治的으로 解決될 수 있는 問題의 領域

(5) 法秩序와 法履行

(6) 國內政治問題

(7) 國際政治問題 등이 政治教育의 內容에서 消化되어야 할 領域으로 보고 이것을 어떠한 方式에서 自由로운 意思形成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研究 指導한다.

فيت서 (Fischer) 의 編著 「政治教育」의 內容을 보면,

(1) 基本權 問題

(2) 國家와 共同體에서의 多元主義

- (3) 政黨
- (4) 聯邦共和國의 議會制度
- (5) 社會政策
- (6) 獨逸의 經濟秩序와 經濟政策
- (7) 職業과 勞動의 世界 - 雇用主와 勞動者
- (8) 分斷된 獨逸
- (9) 獨逸 나찌와 全體主義의 支配體制
- (10)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全體主義的인 支配와 危險
- (11) 民族의 共存
- (12) 後進國 開發援助의 問題등을 다루고 있는데, 玆서는 위의 項目 1~4의 主題를 學校教育의 問題와 關聯하여 別도로 體系的인 項目으로 세워서 가르칠 것을 提案하고 있다.

哲學的 人間學的인 意味

- (1) 모든 人間은 날때부터 平等하다.
- (2) 人間이 原來 自由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前提하지 않고 人間을 생각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 (3) 人間은 精神的으로 모두 能力을 타고 났다.
- (4) 모든 人間은 모든 것에 能力을 갖고 있으며 人間은 善하게 태어난 것도 惡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人間에겐 이 두 性格이 竝存한다.

社會的 哲學的 意味

- (1) 人間은 慾求에 매여있는 動物이다.
- (2) 人間은 本來부터 社會的 動物이다.

(3) 人間の 慾求를 滿足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制度와 規則과 道具를 통한 自給自足 없이는 不可能하다.

(4) 人間은 經驗에 있어서는 똑 같을 수가 없다. 個人的 必要에 의한 自己實現도 그 때문에 社會全體로 보아 最少限의 同質性만을 가지고 있다.

政治的인 意味의 基礎理解

(1) 國家는 하나의 社會的 機關이다. 이것은 文化的 創造이다.

(2) 政治란 世界의 社會全體化의 聯關속에서 個人과 集團 또는 機關의 關心을 貫徹시키려는 試圖이다.

(3) 關心이란 慾求滿足과 社會秩序에 適合한 社會속의 個人과 集團에게 意識化되고 또 形式化된 要請이다.

民主主義 基本命題 (위의 前提를 통한)

(1) 個人이나 集團이나 機關 또는 國家가 내 세우는 關心表明은 가장 人間的인 것이다. 이는 哲學的 人間學的 社會的 社會哲學的인 妥當性を 갖고 있다.

(2) 이러한 個人的 集團的 關心을 尊重하고 認定할 뿐만 아니라 이의 實現을 위해서 努力하는 國家는 民主主義的이다.

(3) 民主主義的 政治란 이러한 意味에서 모든 市民의 最大限의 參與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自己實現을 통한 平等과 自律的 決斷을 尊重하는 것은 이 國家의 最上의 基準이 된다.

(4) 民主主義的 政治는 社會속에서 生存의 秩序 뿐만 아니라 社會의 모든 構成員을 위한 生存保護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해 努力한다.

(5) 民主主義的 政治는 社會속에서의 서로 多樣한 關心들이 對等하게 認

定되도록 努力을 아끼지 않으며 普遍的 關心을 모두가 認識하고 認知할 수 있는 可能性을 열어준다. 그리고 現實적으로 서로가 달리고 있는 關心의 妥當性을 認定해 주어서 民主主義 政治는 “最少限의 惡”으로 줄이도록 努力하는 것이다.

(6) 民主主義 政治는 既存하는 社會關係의 分析에서 出發하여 서로 對立되는 모든 要素를 克服한다. 이 對立이란 위에서 列擧한 基本命題에 違背되거나 客觀적인 關心의 差異를 드러내는데 妨害되는 것을 말한다.

(7) 民主主義 政治는 다음과 같은 行動原則을 固守하는 것을 말한다.

(가) 政治에는 目的이 좋으면 手段은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政治가 결코 무엇을 成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成就를 위해서 어떤 代價를 치르느냐가 重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政治에는 여러가지 意見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絶對적으로 올바른 意見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政治는 “좀 나은가” 아니면 “더 나쁜가”가 있을 뿐이지 “좋다”, “나쁘다”는 있을 수 없다.

(다) 모든 政治에는 價値決定에 있어서 人間의 自由로움에 土壤을 둔 自律性이 尊重되어야 한다. 政治는 어떠한 특정한 價値觀을 宣布해서도 안되고 人間은 절대로 이런 強要를 받아서는 안된다.

4 . 結 論

〔政治教育은 一般的으로 두 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進步的이고 既存하는 社會的 現實을 改革할 수 있는 判斷能力과 創意力을 開發하여 既存體制를 超越하려는 機能이고, 둘째로는 肯定的이고 보수적이어서 既存하는 支配體制를 辯護하는 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實際로 社會의 現實에 비추어 보면 政治教育의 目的은 우선 既存하는 支配와 權力體制의 正當性을 說得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教育施行機關인 學校가 그 社會의 保存과 發展을 위한 機能에 屬해 있어서 그 社會의 目的과 課題를 遂行하는데 奉仕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보인다.

政治教育에 있어서 進步的 未來指向的인 機能的 측면을 認定하면서도 어떤 國家든지 이러한 既存體制의 正當性에 대한 確信을 자라나는 世代가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 例外가 없다. 여기에는 東歐圈의 나라나 서방민주주의 國家도 除外되지 않는다. 그런 點에서 존트하이머는 西獨의 政治教育의 형편은 바이마르共和國때와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西獨의 政治教育의 役割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問題는 1950年代에는 우선적으로 나찌스와 共產主義와의 심각한 對決을 克服해야만 했었다. 1946年 經濟的 危機狀況에서 獨逸에서 처음으로 다시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선거권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나찌스集團에 가담하고 있거나 호의를 나타낸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狀況에서의 西獨의 政治教育도 必然的으로 民主主義 體制의 正當性과 反나찌주의 즉, 全體主義的인 傾向을 國民들과 靑少年들의 意識에서 제거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目標때문에 民主主義 國家體制와 民主主義 制

도는 가장 이상적인 政治形態라고 說得하고 民主主義體制가 갖는 여러 制度의 機能을 理解시켜야만 했었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는 分明히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1960年代부터 나타나기 始作한 極左派로 因한 社會動搖와 테러리즘에 대결해야 할 狀況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로 因해서 市民들의 生命과 自由는 잔인하게 또는 비참하게 剝奪당하는 危機에 處하게 되었다. 이로서 테러리즘은 법치국가의 信賴와 安定을 破壞하는 原因이 되고도 남았다.

이러한 도전에 對備한 政治教育은 더욱 必要하게 되었다. 西獨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가 自身들에게 가장 自由롭고 가장 안전한 生活形態를 保障한다는 것을 信賴하도록 해야만 했다.

西獨은 무수히 葛藤을 겪어가고 있지만 그 葛藤의 問題는 多様하다. 그러나 그 多様な 葛藤이 하나의 問題 즉, 지금의 政治體制를 위태롭게 한다는 事實이다. 1970年代에 西獨은 유류파동과 함께 또 한번 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核에너지에 대한 論爭에서 國民들의 絶對的인 反對때문에 政治教育의 問題를 재삼 검토해야 할 危機에 處하게 되었다.

民主主義의 原則인 市民參與가 극단적으로 國家가 추구하는 目標에 對立的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전혀 目標에 대한 考慮가 없이 參與만을 추구해왔던 民主的 政治教育이 만들어낸 실책이었다고 政治教育研究所의 당국자들은 反省한다.

西獨의 政治教育은 이데올로기 對立關係에서 극히 客觀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이는 西獨의 市民들이 直接 東獨을 訪問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體驗的인 報告들은, 이를 듣는 이웃사람들에게 생생한 反共教育이 되고 있기도 하다. 東獨으로 旅行하는 西獨사람의 숫자는 1967年 1,423,738名에서 1973年 2,278,989名, 그리고 1976年 3,120,962名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東獨住民의 西獨旅行은 1973年 192,900名에서 1976年

西獨의 政治教育

445,306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은 反共 이데올로기 教育에 많은 關心을 주력하고 있다. 政治教育研究所에서 出版되는 雜誌나 資料들은 이러한 観点에서 東歐圈의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을 詳細히 報告하여 知識 情報를 提供해 주고 있다.

특히 統一教育과 關聯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西獨의 統一教育은 東西 獨間의 統一보다는 오히려 유럽공동체의 統一에 주력하고 있다. 1974年 6月 21日에 연방정치교육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重要한 要素로서 유럽政治의 問題 특히 유럽議會의 直接選舉와 關聯된 經濟問題 등에 대한 內容을 靑少年들에게 提示해 준다.

이에 대한 것은 더 詳細한 研究에 맡기고 西獨의 政治教育과 關聯지워 우리나라의 政治教育에 이것이 주는 意味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附 錄

<西獨反共教育的 實態>

分斷된 獨逸을 理念教育의 立場에서 어떻게 教育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서 알아보자. 이 부분은 反共教育의 교과내용에 優先하는 基本的인 것으로 되어있다. 西獨은 靑少年들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두 가지 次元에서 實施하고 있다. 첫째로는 共產主義理論을 紹介하고 이의 問題點과 實踐過程에서의 矛盾을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의 方法은 東獨과 西獨의 體制와 現實을 比較하는 것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理念教育을 實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間接的인 方法에 의한 理念教育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東·西獨의 比較는 첫째로 體制의 正當性의 根據와 둘째로는 政治的인 體制, 세째로는 政治·經濟的 體制, 네째로는 社會經濟的 體制를 들 수 있고 그 比較의 內容을 圖式化시켜 보면, 一般的인 比較로서는 다음과 같다.

區 分	西 獨	東 獨
一般的 體制	自由民主主義 基本法, 憲法裁判, 國民의 自主性 西獨은 獨逸의 一部로 理 解함.	마르크스·레닌主義와 關聯 된 것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憲法 (1976年 9次政黨大會) SED黨 計劃書

區 分	西 獨	東 獨
	獨逸憲法에 따른 國際關係	다른 社會主義國家와 協同 아래에 있는 社會主義的 獨逸國家
	平和保障과 善隣政策	平和로운 共存
政治體制	代議民主主義 (複數政黨主義, 代議制度의 野黨 認定) 三權分立 社會的 法治國家	社會民主主義 (프롤레타리아의 獨裁, 民族戰線, 民主主義的 中央集權) 政黨政治를 原則으로 最高의 支配權力과 法機關으로서의 勞動黨 (社會主義的 合理性)
社會體制	開放적인 多元主義 社會 (社會的 政治的 意思形成의 媒介體로서의 政黨과 組合) 情報과 言論의 自由 結社의 自由	發展된 社會主義 社會 (勞動者 階級과 이에 聯合된 階級들의 政治權力을 통한 社會主義 社會의 完成)
經濟體制	社會的 伸張經濟體制	社會主義的 計劃經濟體制 (社會主義의 經濟體制)

위와 같은 一般的인 體制의 正當性이 實際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東獨의 社會主義 國家가 目標로 하고 있는 것과 現實과의 差異를 알게 함으로써 共產主義의 理念이 갖는 限界를 깨닫게 해 준다.

東·西獨의 正當性과 政治的 現實

西 獨		東 獨	
正 當 性	政治的 現實	正 當 性	政治的 現實
一般的인 正當性的 根據			
基本法을 지킴으로써 人間의 尊嚴性, 人間의 自由로운 自己實現의 權利, 法앞에서의 平等을 保障하고 保護한다.	人間의 尊嚴성과 人間의 自由로운 自己實現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삶의 機會에 不平等이 存在한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社會主義 社會로 또 共產主義 社會로 發展한다. 人間의 尊嚴, 自由와 平等은 이 發展에 依存하고 있다.	政治的 經濟的인 發展이 그 스스로의 利益을 위해서 있으며 보편적이고 社會的인 慾求(基本權과 人權)에 對立되어 가고 抑壓的이고 中央集權的인 政党和 國가지배가 存在한다.
政治的 體制			
國家의 權力(立法, 司法, 行政)의 關係는 三權 分立의 原則에 따라 行해진다.	議會의 決定과 監察能力은 行政府(政府, 行政機關)의 힘과 權力도	勞動者 階級의 政党的 指導的인 役割에 依한 프롤레타리아의 獨裁 民主主義的 中	社會化 대신에 政党和 國家의 지배체제 確立, 지배적인 갈등들은 党的 指

	는 經濟的인 관심 때문에 影響을 받 는다.	央行政 政黨政治 의 原則	導層만 擔當하고 國家와 大衆機關 은 그것을 實施 할 뿐이다.
政治的 社會的 體制			
社會의 모든 構成 員들은 法에 따라 그들의 關心을 多 元的으로 採擇할 수 있고 政治體制 를 通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保障받 고 있다. 社會의 多元主義 的인 體制와 國家 의 대의적인 體制 사이를 仲介하는 重要한 役割을 政 黨이 해낸다.	社會의 多元主義 的인 關心은 실 상 權力을 行使 하고 또 政治的 으로 관철시키는 데 不均衡의 機會 밖에 없다. 議會와 政黨이 行 한 失手나 잘못된 國民들의 저항적 인 심한 行動으 로 유도한다.	勞動者 階級은 지 배계급이다. 勞動 者가 洞察力에 있어 서 때로는 制限되 어 있으므로 (Le- nin) 社會主義 社 會의 完成에 이르 는 과도기에는 勞 動者 階級을 대신 해서 政黨의 전위 대가 지배를 擔當 한다.	黨과 國家의 관료 주의가 生産手段 을 獨占하고 政治 的인 지배를 行使 한다. 이들은 獨 裁的으로 勞動者 階級の 關心을(居 住의 自由, 結社 의 自由, 言論의 自由) 묵살하고 있다.

政治的 經濟的 體制			
<p>國家와 經濟의 關係는 社會的 市場 經濟의 原則에 따라서 定한다.</p>	<p>政治的인 體制는 기존하는 經濟的 構造를 保護하고 體制에 맞도록 繼續 發展시킨다(干涉國家). 政治的 體制는 經濟的인 재산편중과 經濟的인 힘의 形成을 個人에게 양도한다.</p>	<p>프롤레타리아의 獨裁. 社會的 不平等的 제거.</p>	<p>政黨 (SED) 은 모든 經濟的인 성과를 집중시키고 社會에 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계속 社會的인 不平等을 招來한다.</p>
社會的 經濟的 體制			
<p>國會와 經濟의 關係는 社會的인 多元主義의 關心과 社會的 市場經濟의 原則에 따라서 定한다.</p>	<p>기존하는 經濟的 權力構造는 대체로 政治的·社會的 갈등과 그 조정을 조종해 나간다.</p>	<p>勞働者 階級이 生産手段을 소유한다.</p>	<p>政黨과 國家가 生産手段을 獨占하고 勞働者 階級에 의한 社會化를 實現하지 않고 있음을 認定한다.</p>

西獨의 政治教育의 内容的인 核心은 위와 같은 反共教育을 並行하면서 民族主義體制와 民主的 生活方式의 訓練에 있다. 또 現在의 體制와 그 社會政治的인 現實의 올바른 理解에서 積極的인 參與에로 誘導하는 것이다. 또한 이 民族主義體制를 威脅하는 極右派와 極左派 테러리즘에 대한 靑少年의 啓蒙을 중심삼고 있다. 이러한 內容은 開放的인 方法과의 結合에서 더욱 큰 意味를 갖는다.

<方法的인 領域>

西獨 政治教育의 方法論 即, 교수법의 歷史를 술츠·하겔라이트(Schulz·Hageleit)는 3 段階로 區分하여 설명하고 있다.

第1 段階: 規範的 教育學과 교수법 (19 세기의 政治教育) — 王과 國家와 하느님을 위해서 即, 既存하는 秩序의 保存에 대해서 學生들은 배운다. 그러나 어떠한 開放的인 見解와 試圖도 容納되지 않는다.

第2 段階: 陶冶理論的인 教授法 (1965年까지) — 學生들은 自身의 人格陶冶와 自身의 幸福을 위해서 배운다. 教育方法은 普遍的이고, 教育實踐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時期에는 바이마르共和國때의 教授法的 命題는 전혀 實施될 수 없었다.

第3 段階: (1) 開放的인 教授法 (1965年以後) — 學生들은 스스로의 나온 미래를 위해서 배운다. 社會政治的인 現實이 여기에 接合되었다. 즉 社會政治的 現實은 變化되어야 할 것으로 看做되었다.

(2) 學習理論的인 教授法 (1965年以後) — 學生들은 다음 삶의 狀況을 克服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學習結果는 이것을 위해 應用되어야 한다. 適用의 能力은 講義에서 訓練되어야 했다.

위의 區分은 주로 教授法的 變遷에 따른 것이었다.

政治教育은 단순한 注入式 政治學習이 아니고 또 完成된 知識만을 傳達

宣傳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國民 個個人的 自律的인 意思形成의 土臺가 認定되어야 하고, 또 이 위에 教育方法의 基礎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教育에 動員되는 모든 補助 科學들인 心理學, 社會學은 社會科學등을 통해서만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다. 政治教育에서는 “무엇 (was) 을” 보다는 “어떻게 (wie) ”를 重要視 해야한다. 대체로 政治教育의 方法論에서 注目되고 있는 3 段階는 知識獲得, 認識, 洞察이다. 여기서 나온 結果가 行動과 連結되게 된다. 政治教育은 결국 實踐的인 行爲와 必然的인 關聯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된 關心이 「무엇을 얼마큼 어느나」가 아니라 「어떻게 行動할 수 있는 準備 態勢가 되어 있느냐」에 集中되어 있다.

(1) 知識의 獲得 — 知識, 情報, 客觀的인 事實 認知.

(2) 認識—態度와 行爲 方式에 關聯된 事實과 知識을 批判意識과 反省的 行爲로 判斷하고 決斷하게 함. (여기서는 철저히 討論과 批判이 保障되어야 함)

(3) 洞察—態度決定에서 設定된 觀點을 가지고 多樣한 事態를 살펴보고 여기에 이미 세워진 觀點을 適用할 수 있는 知識과 能力을 熟知하는 段階로 본다.

올바른 판단에 앞서서 우리는 되도록 開放的인 知識 情報를 獲得해야 한다. 知識 情報의 制限은 가장 바람직한 意思決定의 限界를 暗示하게 된다. 앞에서 列舉한 方法的인 段階 중 知識獲得과 認識을 分明하게 說明하면,

(가) 知識習得

- ① 人間은 環境의 影響을 받고 동시에 環境을 만들어 간다는 認識.
- ② 政治的·社會的·經濟的·歷史的인 事態를 分析하고 解釋하는 能力

을 獲得한다. 이 分析의 目的은 政治的·社會的 葛藤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南北의 葛藤과 이데올로기 對立 등)

③ 政治·經濟·社會와 地理的인 部門은 이들의 相互作用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예를 들면 獨裁 體制의 기원 등)

④ 自身과 他人의 關心이 언제나 葛藤에 빠질 수 있음을 認知시킨다. (예를 들면 같은 職場 안의 同僚들 사이의 葛藤, 社會속의 經濟와 文化 政治間의 必然的인 葛藤 등)

⑤ 協同的인 行爲의 必然性에 대해서 認知시킨다.

(나) 認識領域

① 合理的인 思考와 行爲에 대한 準備態勢의 確立 (예를 들면 先入觀의 排除)

② 協同的인 行爲에 대한 準備態勢 (예를 들어 學校生活에서의 集團作業)

③ 自身の 關心과 權利를 主張하고 他人의 關心과 權利에 寬容하도록 認識

④ 굳어진 體制와 服從을 強要하는 것에 대한 抵抗을 認識케 한다.

⑤ 葛藤을 解消하는 것을 배운다.

⑥ 社會와 國家의 모든 領域에서의 民主化過程에 대한 參與와 批判을 認識시킨다.

⑦ 社會的·政治的 正義를 實現하는데 同參토록 한다.

이러한 方法的인 檢討는 內容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綜合的으로 內容과 方法이 結合된 政治教育을 통해서 靑少年들에게 십어 줄 8가지의 能力熟達을 列舉해 보자.

① 먼저 學生들이 사회 혹은 社會의 部分, 機關 등을 分析할 수 있는 能

력을 기른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方法으로서는 社會的·歷史的 思考, 이 데올로기 批判 認識 批判이 있다.

② 學生들이 學校에 다니는 동안에 아주 重要的 社會的 機關에 대해서 詳細하게 工夫하도록 한다. 특히 이 기관이 社會全體의 聯關속에서 人間의 삶을 위해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지를 배우도록 한다.

③ 學生들이 社會的인 삶에서 가장 基礎的이면서도 중요한 基本行爲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운다. 여기서는 特히 社會經濟的인 構造와 政治的 支配와의 關係, 社會的 機構와 意識構造와의 關係 등에 대한 認識을 獲得하도록 한다.

④ 學生들로 하여금 政治的·社會的 機關과 그 行政過程에 따라 評價를 하도록 하여 事實判斷, 價値判斷과 社會的 價値와 規範에 대한 批判的 省察을 갖도록 하며 社會的 價値判斷의 形成과 科學的 價値判斷 批判의 基礎를 터득하게 한다.

⑤ 學生들로 하여금 既存하는 體制의 分析을 통해서 社會政策的인 目標設定 즉, “實現될 수 있는 유토피아”를 開發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한다.

⑥ 學生들로 하여금 자신의 慾求와 두려움, 주저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자신의 社會化와 社會的 社會化메카니즘과 함께 이들을 分析하여 整理할 수 있도록 한다.

⑦ 學生들이 새로운 行動樣式과 意思疎通의 形式, 規範들과 慾求들을 發展시킬 機會를 갖게 해 준다. 다시 말하면 創造性, 甘受性, 自己信賴, 意思疎通의 能力, 團結力, 愛着心, 自己確立의 性格들을 發展시킬 機會를 갖게 해 주어야 한다.

⑧ 學生들로 하여금 自立的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團結해서 深思熟考한 目標設定에 一致하게 政治行爲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社會的인 關心들을 追跡하고 理論과 實踐의 연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Refle-

xion) 스스로 行動戰略을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考察한 것에서 오직 方法的인 측면만 가려내어 보면 西獨의 政治教育方法을 꾸준히 開發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추려 보면,

- (1) 自律的인 자기결단이 保障되어야 한다.
- (2) 自發的인 參與에로 誘導되어야 한다.
- (3) 단순한 適應이 아니라 반성과 비판의식을 심어준다.
- (4) 自由와 自律性의 土臺가 認定되어야 한다.
- (5) 現實分析의 이성적 洞察力을 기른다.
- (6) 政治教育은 思考訓練이며 生活訓練(民主的)이다.
- (7) 態度決定과 決斷으로 이끄는 實踐教育이기 때문에 단순한 知識傳達은 禁物이다.
- (8) 현실해석의 多樣性和 開放性을 認定해 주어야 한다.
- (9) 客觀的인 知識情報의 獲得이 可能해져야 한다.
- (10) 說得과 이성적인 對話의 方法을 통해서 政治教育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强要的 主입식은 잘못이다.
- (11) 政治教育의 方法은 間接的이고 潛在的이어야 한다. 潛在的이란 것은 지금까지의 方法들을 總括한 그 代表的인 方法이다.

〈發行處의 許可없이 轉載·複寫 不許〉

〈非賣品〉

西 獨 의 政 治 教 育

1981年 12月 26日 印 刷

1981年 12月 31日 發 行

發行處：統 一 研 修 所

